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Galatians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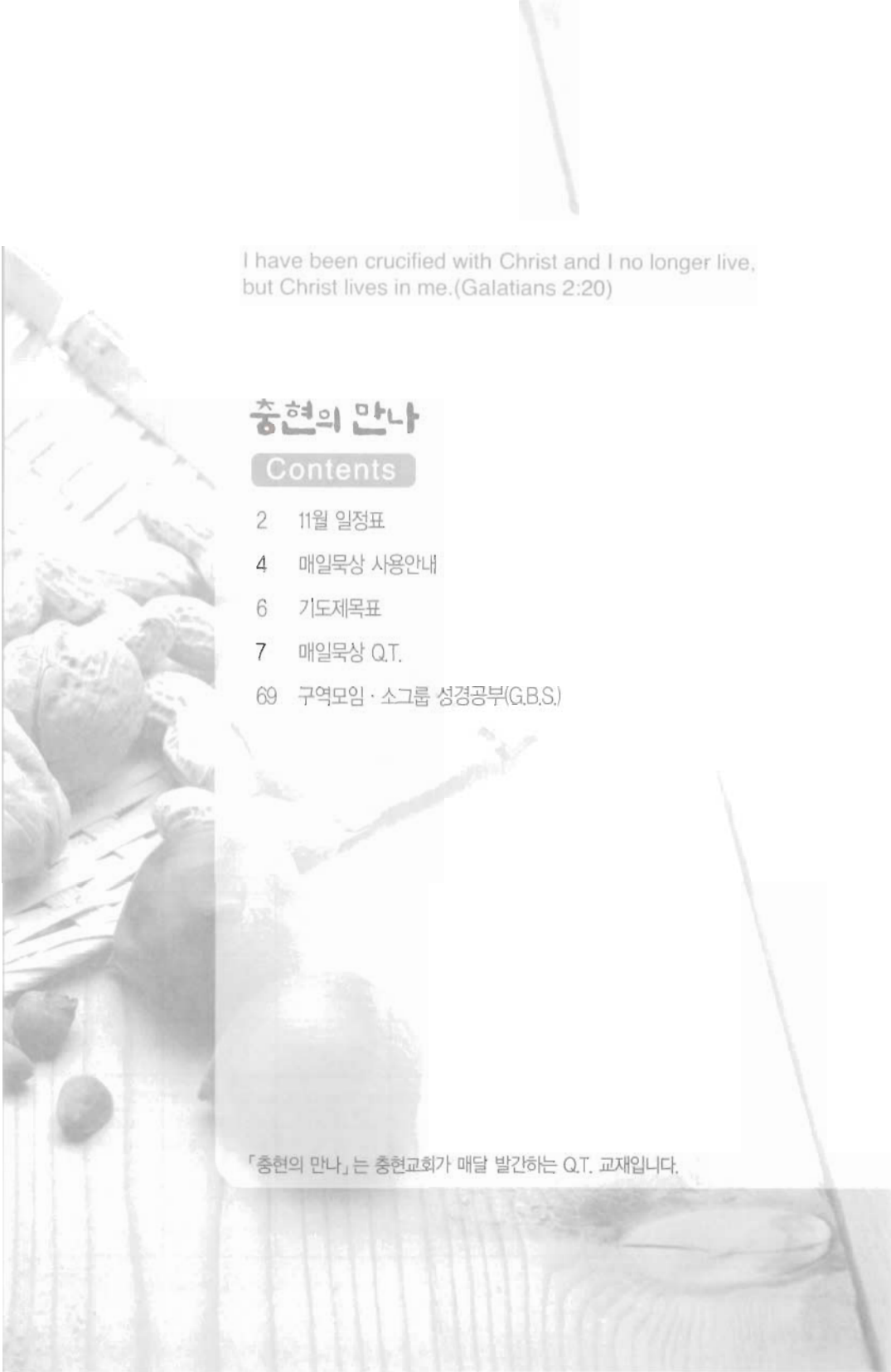
2015. 11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사사기 · 롯기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충현의 만나

Contents

- 2 11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69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11

2015 Nov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전교인 제7차 성찬식	2 전교인	3 17교구	4 1교구	5 9교구	6 5교구	7 전교인
8 전교인	9 전교인	10 11교구	11 3교구	12 14교구	13 12교구	14 전교인
15 전교인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특별찬양예배	16 전교인	17 13교구	18 2교구	19 18교구	20 8교구	21 전교인
22 전교인	23 전교인	24 15교구	25 4교구	26 16교구	27 10교구	28 전교인
29 전교인	30 전교인					

교회 주요 일정

11월 1일

제7차 성찬식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특별찬양예배

11월, 개인 전도 계획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 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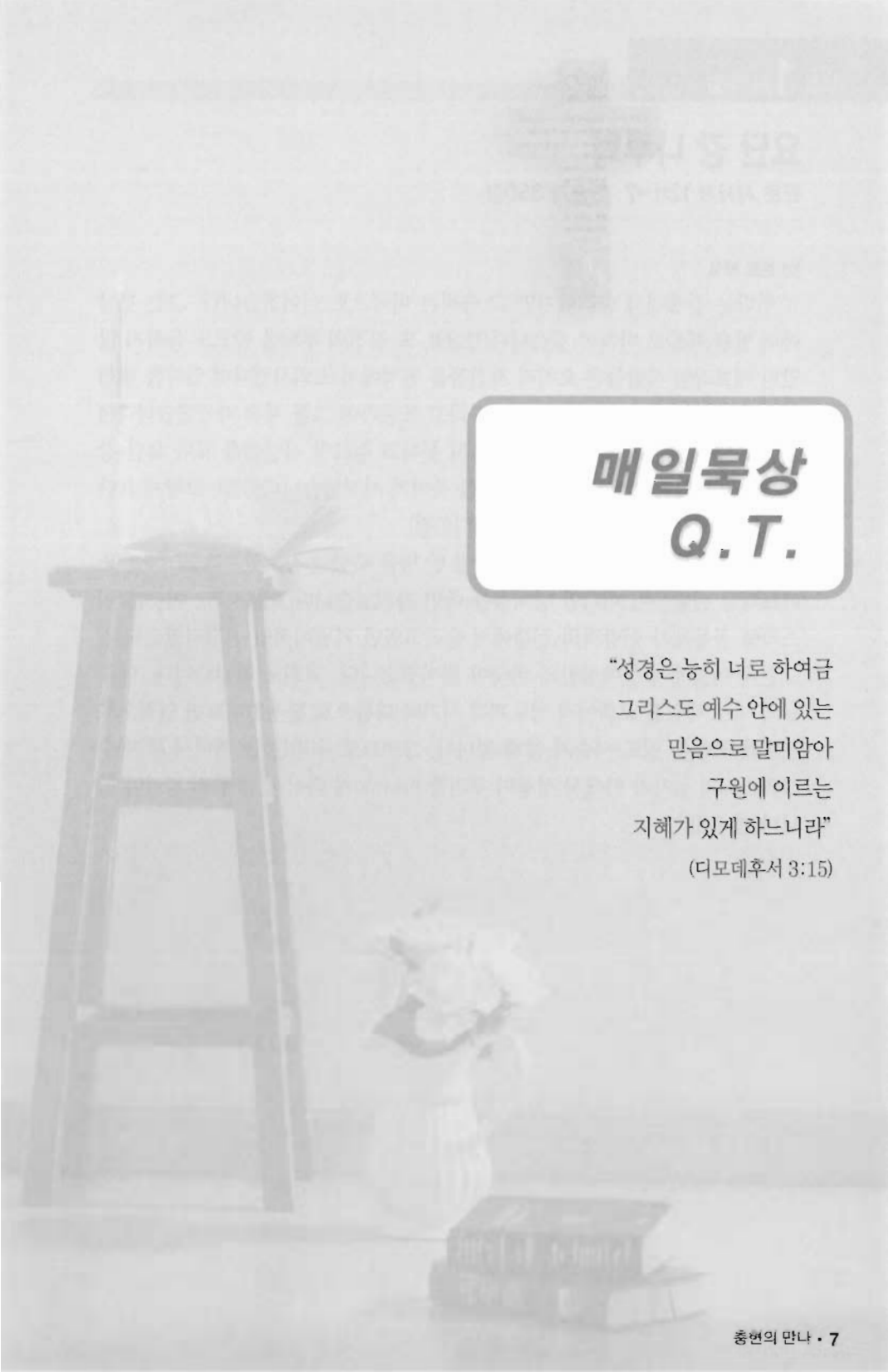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충청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김동하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③ 충청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④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⑤ 충청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⑥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⑦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해당 교구 전도와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⑧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⑨ 충청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⑩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요단 강 나루턱

본문 사사기 12:1~7 찬송가 350장

》》 본문 해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무남독녀 딸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11:39). 또 참전의 부탁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전쟁에서 소외시켰다며 입다를 위협했습니다(1절). 그들은 입다를 도망자라고 조롱하며 그를 계속 자극했습니다(4절). 그 말을 들은 입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 요단 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5절). 그렇게 요단 강 나루턱에서 42,000명이 죽었습니다(6절).

요단 강 나루턱은, 에훗이 모압 사람 만 명을 죽였던 장소였고(3:27~30),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 방백들을 죽인 자리였습니다(7:24~25). 이곳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기념비적인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성도끼리 시기와 다툼으로 분쟁하다보면 영적으로 서로를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엡 4:3).

》》 성경 본문

- 1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 2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 3 나는 너희가 도와 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 4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 5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 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 6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 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사만 이천 명이었더라
- 7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육 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으매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 1 The men of Ephraim called out their forces, crossed over to Zaphon and said to Jephthah, "Why did you go to fight the Ammonites without calling us to go with you? We're going to burn down your house over your head."
- 2 Jephthah answered, "I and my people were engaged in a great struggle with the Ammonites, and although I called, you didn't save me out of their hands."
- 3 When I saw that you wouldn't help, I took my life in my hands and crossed over to fight the Ammonites, and the LORD gave me the victory over them. Now why have you come up today to fight me?"
- 4 Jephthah then called together the men of Gilead and fought against Ephraim. The Gileadites struck them down because the Ephraimites had said, "You Gileadites are renegades from Ephraim and Manasseh."
- 5 The Gileadites captured the fords of the Jordan leading to Ephraim, and whenever a survivor of Ephraim said, "Let me cross over," the men of Gilead asked him, "Are you an Ephraimite?" If he replied, "No,"
- 6 they said, "All right, say 'Shibboleth.'" If he said, "Sibboleth," because he could not pronounce the word correctly, they seized him and killed him at the fords of the Jordan. Forty-two thousand Ephraimites were killed at that time.
- 7 Jephthah led Israel six years. Then Jephthah the Gileadite died, and was buried in a town in Gilead.

》》 기도 제목

교회의 분열이 사라지고, 사랑의 연합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126 "십볼렛" 놀람게도 이 단어는 홍수를 의미한다. 아마도 요단 동쪽 사람들은 이 단어의 첫 자음을 강하게 '쉬'로 발음한 반면 요단 서쪽 사람들은 부드럽게 '스'로 발음했던 것 같다.

사사가 되었더라

본문 사사기 12:8~15 찬송가 428장

» 본문 해설

입다가 죽은 후에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입산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그들을 모두 이방인들과 결혼시켰습니다(9절). 그것은 일종의 정략결혼이었습니다. 입산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된 엘론은 10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얄론 땅에 장사되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압돈은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사십 명과 손자 삼십 명은 나귀 70필을 타고 다니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기록은 일신의 안위와 치부와 권력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사사였지만 하나님의 사명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통치하던 시기의 이스라엘은 평화롭고 풍요로웠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어두웠습니다. 더욱이 정략결혼은 하나님이 금하신 죄였는데(출 34:16), 사사의 중대한 직임을 받은 입산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무감각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명보다 사사라는 직책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입니다. 직분에 매인 사람이 되지 말고 사명으로 허리를 동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 성경 본문

- 8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 9 그가 아들 삼십 명과 딸 삼십 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삼십 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칠 년이라
- 10 입산이 죽으매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 11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 12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으매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 13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 14 그에게 아들 사십 명과 손자 삼십 명이 있어 어린 나귀 칠십 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팔 년이라
- 15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으매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 8 After him, Ibzan of Bethlehem led Israel.
- 9 He had thirty sons and thirty daughters. He gave his daughters away in marriage to those outside his clan, and for his sons he brought in thirty young women as wives from outside his clan. Ibzan led Israel seven years.
- 10 Then Ibzan died, and was buried in Bethlehem.
- 11 After him, Elon the Zebulunite led Israel ten years.
- 12 Then Elon died, and was buried in Aijalon in the land of Zebulun.
- 13 After him, Abdon son of Hillel, from Pirathon, led Israel.
- 14 He had forty sons and thirty grandsons, who rode on seventy donkeys. He led Israel eight years.
- 15 Then Abdon son of Hillel died, and was buried at Pirathon in Ephraim, in the hill country of the Amalekites.

>>> 기도 제목

안정적이고 부유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12:14 "아들 사십 명과 손자 삼십 명" 전부 합치면 73명이다. 권세와 부의 상징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본문 사사기 13:1~14 찬송가 285장

» 본문 해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1절). 이때에 여호와와 사자가 자식이 없던 마노아 부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마노아는 자신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 분이 누구인지 처음에는 정확히 알지도 못했습니다(16절). 그러면서도 그는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12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요일 5:20).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골 1:25). 그래서 우리는 마노아보다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 성경 본문

- 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 2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 3 여호와와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 4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 5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 1 Again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so the LORD delivered them into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for forty years.
- 2 A certain man of Zorah, named Manoah, from the clan of the Danites, had a wife who was sterile and remained childless.
- 3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er and said, "You are sterile and childless, but you are going to conceive and have a son.
- 4 Now see to it that you drink no wine or other fermented drink and that you do not eat anything unclean,
- 5 because you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No razor may be used on his head, because the boy is to be a

-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 6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므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 7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이라 하더라 하니라
- 8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 9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 10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 11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 12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 13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 14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키라 하니라

- Nazirite, set apart to God from birth, and he will begin the deliverance of Israel from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 6 Then the woman went to her husband and told him, "A man of God came to me. He looked like an angel of God, very awesome. I didn't ask him where he came from, and he didn't tell me his name."
- 7 But he said to me, "You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Now then, drink no wine or other fermented drink and do not eat anything unclean, because the boy will be a Nazirite of God from birth until the day of his death."
- 8 Then Manoah prayed to the LORD: "O LORD, I beg you, let the man of God you sent to us come again to teach us how to bring up the boy who is to be born."
- 9 God heard Manoah, and the angel of God came again to the woman while she was out in the field; but her husband Manoah was not with her.
- 10 The woman hurried to tell her husband, "He's here! The man who appeared to me the other day!"
- 11 Manoah got up and followed his wife. When he came to the man, he said, "Are you the one who talked to my wife?" "I am," he said.
- 12 So Manoah asked him, "When your words are fulfilled, what is to be the rule for the boy's life and work?"
- 13 The angel of the LORD answered, "Your wife must do all that I have told her."
- 14 She must not eat anything that comes from the grapevine, nor drink any wine or other fermented drink nor eat anything unclean. She must do everything I have commanded her."

»»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나의 기도 응답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135 "나실인" '구별된' 혹은 '성별된'이란 의미의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용어. 삼손의 나실인 서원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삼손도 하나님께 의해 성별된 것이었다. 또한, 그 기간은 인생 전체였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본문 사사기 13:15~25 찬송가 171장

>>> 본문 해설

마노아 부부는 여호와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놀라운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전달해 준 사자가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라고 묻자(17절), 여호와와의 사자는 “기묘자”라고 대답했습니다(18절). 이 말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고 접근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도 없으며 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이사야 9:6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마태복음 1:21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 성경 본문

- 15 마노아가 여호와와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 16 여호와와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
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와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 17 마노아가 또 여호와와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
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 18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
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 19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
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
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 20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
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
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 21 여호와와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
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와
사자인 줄 알고
- 22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니
- 23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
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
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
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 24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 25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탄에서 여호와와 영
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 15 Manoah said to the angel of the
LORD, "We would like you to stay
until we prepare a young goat for
you."
- 16 The angel of the LORD replied, "Even
though you detain me, I will not eat
any of your food. But if you prepare a
burnt offering, offer it to the LORD."
(Manoah did not realize that it was
the angel of the LORD.)
- 17 Then Manoah inquired of the angel of
the LORD, "What is your name, so
that we may honor you when your
word comes true?"
- 18 He replied, "Why do you ask my
name? It is beyond understanding."
- 19 Then Manoah took a young goat,
together with the grain offering, and
sacrificed it on a rock to the LORD.
And the LORD did an amazing thing
while Manoah and his wife watched:
- 20 As the flame blazed up from the altar
toward heaven, the angel of the
LORD ascended in the flame. Seeing
this, Manoah and his wife fell with
their faces to the ground.
- 21 When the angel of the LORD did not
show himself again to Manoah and his
wife, Manoah realized that it was the
angel of the LORD.
- 22 "We are doomed to die!" he said to his
wife. "We have seen God!"
- 23 But his wife answered, "If the LORD
had meant to kill us, he would not
have accepted a burnt offering and
grain offering from our hands, nor
shown us all these things or now told
us this."
- 24 The woman gave birth to a boy and
named him Samson. He grew and the
LORD blessed him,
- 25 and the Spirit of the LORD began to
stir him while he was in Mahanah
Dan, between Zorah and Eshtaol.

》 기도 제목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13:24 "삼손" 이 이름은 '태양' 또는 '밝음'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한 것이다. 여기서는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알지 못하였더라

본문 사사기 14:1~9 찬송가 190장

>>> 본문 해설

삼손은 자신을 딘나에서 본 블레셋인의 딸과 결혼시켜 달라고 부모에게 요청했습니다(1~2절). 삼손의 부모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여자를 택하지 말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딘나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4절)라는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삼손이 이 결혼을 고집한 이유는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했기 때문입니다.

마노아 부부는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들었지만,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자신들이 생각한 방식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롬 11:33).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 성경 본문

- 1 삼손이 딘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 2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딘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 3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 4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 5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딘나에 내려가 딘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 6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 7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 8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 9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 1 Samson went down to Timnah and saw there a young Philistine woman.
- 2 When he returned, he said to his father and mother, "I have seen a Philistine woman in Timnah; now get her for me as my wife."
- 3 His father and mother replied, "Isn't there an acceptable woman among your relatives or among all our people? Must you go to the uncircumcised Philistines to get a wife?" But Samson said to his father, "Get her for me. She's the right one for me."
- 4 (His parents did not know that this was from the LORD, who was seeking an occasion to confront the Philistines; for at that time they were ruling over Israel.)
- 5 Samson went down to Timnah together with his father and mother. As they approached the vineyards of Timnah, suddenly a young lion came roaring toward him.
- 6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him in power so that he tore the lion apart with his bare hands as he might have torn a young goat. But he told neither his father nor his mother what he had done.
- 7 Then he went down and talked with the woman, and he liked her.
- 8 Some time later, when he went back to marry her, he turned aside to look at the lion's carcass. In it was a swarm of bees and some honey,
- 9 which he scooped out with his hands and ate as he went along. When he rejoined his parents, he gave them some, and they too ate it. But he did not tell them that he had taken the honey from the lion's carcass.

》》 기도 제목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과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14:5 "딘나의 포도원" 딘나가 위치한 소렉 골짜기와 그 인근 지역은 풍성한 포도원들로 이름난 곳이었다. 나실인 서약을 한 삼손에게 포도원은 강한 유혹의 장소였다.

여호와와 영이 삼손에게

본문 사사기 14:10~20 찬송가 191장

》》 본문 해설

삼손은 결혼 잔치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고 이 수수께끼를 빌미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쳐 죽인 것(6절)과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인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자기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삼손의 힘은 지푸라기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삼손은 사자에게 찢기고 아스글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고전 1:18).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 성경 본문

- 10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 11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 12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레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운 삼십 벌과 겹옷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 13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운 삼십 벌과 겹옷 삼십 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 14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 10 Now his father went down to see the woman. And Samson made a feast there, as was customary for bridegrooms.
- 11 When he appeared, he was given thirty companions.
- 12 "Let me tell you a riddle," Samson said to them. "If you can give me the answer within the seven days of the feast, I will give you thirty linen garments and thirty sets of clothes.
- 13 If you can't tell me the answer, you must give me thirty linen garments and thirty sets of clothes." "Tell us your riddle," they said. "Let's hear it."
- 14 He replied, "Out of the eater, something to eat; out of the strong, something sweet." For three days

-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 15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꺾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 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냐 하니
- 16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 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 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 17 칠 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 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더라
- 18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 19 여호와와 그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곳 사람 삼십 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 20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they could not give the answer.

- 15 On the fourth day, they said to Samson's wife, "Coax your husband into explaining the riddle for us, or we will burn you and your father's household to death. Did you invite us here to rob us?"
- 16 Then Samson's wife threw herself on him, sobbing, "You hate me! You don't really love me. You've given my people a riddle, but you haven't told me the answer." "I haven't even explained it to my father or mother," he replied, "so why should I explain it to you?"
- 17 She cried the whole seven days of the feast. So on the seventh day he finally told her, because she continued to press him. She in turn explained the riddle to her people.
- 18 Before sunset on the seventh day the men of the town said to him, "What is sweeter than honey? What is stronger than a lion?" Samson said to them, "If you had not plowed with my heifer, you would not have solved my riddle."
- 19 The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him in power. He went down to Ashkelon, struck down thirty of their men, stripped them of their belongings and gave their clothes to those who had explained the riddle. Burning with anger, he went up to his father's house.
- 20 And Samson's wife was given to the friend who had attended him at his wedding.

》》 기도 제목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소서.

14:10 "잔치" 이런 잔치는 고대 근동에서 흔한 것이었으며 여기서는 7일간이나 지속되었다. 잔치에는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기에 이 기간에도 삼손이 나실인 서약을 어겼을 가능성이 크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본문 사사기 15:1~8 찬송가 351장

》》 본문 해설

혼인이 파기되자 삼손은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그는 원수를 갚기 위해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화를 달아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놓았습니다(4~5절). 자신들의 밭에 불을 지른 삼손에게 격분한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과 결혼했던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살랐습니다. 결국 분노가 극에 달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습니다(7~8절). 이처럼 하나님은 급하고 무모해 보이는 삼손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삼손은 개인적인 보복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 뒤에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개인적인 증오와 복수로 얼룩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에게 원수를 갚으십니다(렘 50:15).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 성경 본문

- 1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 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 2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나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 3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 4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 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화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화를 달고
- 5 화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 6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덩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 7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아야 말리라 하고
- 8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 1 Later on, at the time of wheat harvest, Samson took a young goat and went to visit his wife. He said, "I'm going to my wife's room." But her father would not let him go in.
- 2 "I was so sure you thoroughly hated her," he said, "that I gave her to your friend. Isn't her younger sister more attractive? Take her instead."
- 3 Samson said to them, "This time I have a right to get even with the Philistines; I will really harm them."
- 4 So he went out and caught three hundred foxes and tied them tail to tail in pairs. He then fastened a torch to every pair of tails,
- 5 lit the torches and let the foxes loose in the standing grain of the Philistines. He burned up the shocks and standing grain, together with the vineyards and olive groves.
- 6 When the Philistines asked, "Who did this?" they were told, "Samson, the Timnite's son-in-law, because his wife was given to his friend." So the Philistines went up and burned her and her father to death.
- 7 Samson said to them, "Since you've acted like this, I won't stop until I get my revenge on you."
- 8 He attacked them viciously and slaughtered many of them. Then he went down and stayed in a cave in the rock of Etam.

》》 기도 제목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15:5 "사른지라" 밀 수확기는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밭이 불에 타기 쉬웠다. 삼손이 곡식 밭에 방화한 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 때 곡식이라는 뜻의 다곤 신의 신전을 무너뜨릴 것을 예시하고 있다.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본문 사사기 15:9~20 찬송가 217장

》》 본문 해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추적하여 유다에 진을 치고, '턱뼈'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레히에 가득하였습니다(9절).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다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복수하기 위함이라고 대답합니다(10절).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에담 바위에 있는 삼손과 협상을 벌입니다. 동족과 싸울 생각이 없는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박당하여 블레셋으로 넘겨집니다. 포로가 된 삼손이 레히에 도착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면서, 삼손은 묶인 줄을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때려죽입니다(14~15절).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구원자인 삼손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강하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해주신 것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대승을 거둔 삼손이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물을 파고 '엔학고레(부르짖는 자의 샘)'를 허락하십니다. 삼손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라맛 레히(나귀 턱뼈의 언덕)'를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엔학고레'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도들 또한 늘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나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모든 교만함을 회개하고, 오늘도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믿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 성경 본문

- 9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10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11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 9 The Philistines went up and camped in Judah, spreading out near Lehi.
10 The men of Judah asked, "Why have you come to fight us?" "We have come to take Samson prisoner," they answered, "to do to him as he did to us."
11 Then three thousand men from Judah went down to the cave in the rock of Etam and said to Samson, "Don't you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12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13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 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14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15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16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여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17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 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18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9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²⁾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더라

20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 동안 지냈더라

realize that the Philistines are rulers over us? What have you done to us?" He answered, "I merely did to them what they did to me."

12 They said to him, "We've come to tie you up and hand you over to the Philistines." Samson said, "Swear to me that you won't kill me yourselves."

13 "Agreed," they answered. "We will only tie you up and hand you over to them. We will not kill you." So they bound him with two new ropes and led him up from the rock.

14 As he approached Lehi, the Philistines came toward him shouting.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him in power. The ropes on his arms became like charred flax, and the bindings dropped from his hands.

15 Finding a fresh jawbone of a donkey, he grabbed it and struck down a thousand men.

16 Then Samson said, "With a donkey's jawbone I have made donkeys of them. With a donkey's jawbone I have killed a thousand men."

17 When he finished speaking, he threw away the jawbone; and the place was called Ramath Lehi.

18 Because he was very thirsty, he cried out to the LORD, "You have given your servant this great victory. Must I now die of thirst and fall into the hands of the uncircumcised?"

19 Then God opened up the hollow place in Lehi, and water came out of it. When Samson drank, his strength returned and he revived. So the spring was called En Hakkore, and it is still there in Lehi.

20 Samson led Israel for twenty years in the days of the Philistines.

》》 기도 제목

오늘도 나 자신을 믿고 자랑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1) 턱뼈의 산 2) 부르짖은 자의 샘

15:9 "레히" 턱뼈라는 뜻이다. 아마도 이 지역은 여기에 언급된 사건이 있기 전에는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저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붙여진 이름을 미리 말하고 있는데 그런 기법은 히브리 문학에서 흔한 것이다. 레히의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다.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본문 사사기 16:1~9 찬송가 276장

》》 본문 해설

삼손은 나실인으로 선택받았지만 그의 삶은 나실인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욕적이었습니다. 삼손은 가사로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1절).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온 그가 정욕에 눈이 멀어 기생과 동침한 것입니다. 이를 안 블레셋 사람들은 밤새 성문을 지키면서 새벽이 되면 그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2절). 그러나 삼손은 온 밤을 기생의 집에서 보내지 않고, 밤중에 일어나 성 문쪽들과 두 문설주와 문빋장까지 뿔아 메고 헤브론 언덕으로 도망쳤습니다(3절). 이후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4절). 이를 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 그녀를 돈으로 매수합니다(5절). 들릴라는 삼손의 사랑을 이용하여,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 합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품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인 나실인의 비밀을 가지고 위험한 놀이를 즐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것도 모른 채, 그는 자신의 힘을 믿고 육신의 정욕에 깊이 취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죄의 공격이 몰려옵니다. 사탄은 우리의 제일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는 단호하게 죄악을 끊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죄의 유혹에 취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단호하게 죄악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정결하고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육신의 모든 정욕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의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기도합니다.

》》 성경 본문

- 1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 2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 3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짜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 4 이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 5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꺾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천백 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 6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 7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 8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 9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 1 One day Samson went to Gaza, where he saw a prostitute. He went in to spend the night with her.
- 2 The people of Gaza were told, "Samson is here!" So they surrounded the place and lay in wait for him all night at the city gate. They made no move during the night, saying, "At dawn we'll kill him."
- 3 But Samson lay there only until the middle of the night. Then he got up and took hold of the doors of the city gate, together with the two posts, and tore them loose, bar and all. He lifted them to his shoulders and carried them to the top of the hill that faces Hebron.
- 4 Some time later, he fell in love with a woman in the Valley of Sorek whose name was Delilah.
- 5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went to her and said, "See if you can lure him into showing you the secret of his great strength and how we can overpower him so we may tie him up and subdue him. Each one of us will give you eleven hundred shekels of silver."
- 6 So Delilah said to Samson, "Tell me the secret of your great strength and how you can be tied up and subdued."
- 7 Samson answered her, "If anyone ties me with seven fresh thongs that have not been dried, I'll become as weak as any other man."
- 8 Then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brought her seven fresh thongs that had not been dried, and she tied him with them.
- 9 With men hidden in the room, she called to him, "Samson, the Philistines are upon you!" But he snapped the thongs as easily as a piece of string snaps when it comes close to a flame. So the secret of his strength was not discovered.

》》 기도 제목

오늘도 내 속에 죄가 왕 노릇 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163 "헤브론 앞산" 무려 61.1km나 떨어진 산악지역 헤브론 방향으로 갔다는 의미이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주요 도시였기에 삼손의 이 행동은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보인 태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아야 한다.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본문 사사기 16:10~22 찬송가 458장

» 본문 해설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한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속여 희롱하였다며 무엇으로 그를 결박할 수 있는지 다시 물어봅니다(10절). 삼손은 새 밧줄, 베를 등의 거짓말로 그녀를 여러 번 속입니다(11~14절). 그러나 그는 눈물로 깨운 들릴라에게 결국 비밀을 누설하고 맙니다(17절). 마침내 그는 붙잡혀,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멧돌을 돌리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20절). 삼손의 힘이 근원은 나실인으로서의 그의 사명에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 주셨기에 그가 능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인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아무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소명을 상실하고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성도에게는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엄청난 능력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죄악으로 타락한 삼손을 떠나 그를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참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망각할 때 우리는 죄악의 비참한 모습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망각하도록 하는 사탄의 유혹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끊어내십시오. 오직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더욱 성결하게 하여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 성경 본문

- 10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하니
- 11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 12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의 줄 끊기를 실

10 Then Delilah said to Samson, "You have made a fool of me; you lied to me. Come now, tell me how you can be tied."

11 He said, "If anyone ties me securely with new ropes that have never been used, I'll become as weak as any other man."

12 So Delilah took new ropes and tied him with them. Then, with men hidden in the room, she called to him, "Samson, the Philistines are upon you!" But he snapped the ropes off his arms as if they were

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 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 13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 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만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를 낄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 14 들릴라가 바다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를 바다와 낄실을 다 빼내니라
- 15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 16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 17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작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 18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 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 19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 20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 21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 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멍들을 돌리게 하였더라
- 22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threads.

- 13 Delilah then said to Samson, "Until now, you have been making a fool of me and lying to me. Tell me how you can be tied." He replied, "If you weave the seven braids of my head into the fabric on the loom and tighten it with the pin, I'll become as weak as any other man." So while he was sleeping, Delilah took the seven braids of his head, wove them into the fabric
- 14 and tightened it with the pin. Again she called to him, "Samson, the Philistines are upon you!" He awoke from his sleep and pulled up the pin and the loom, with the fabric.
- 15 Then she said to him, "How can you say, 'I love you,' when you won't confide in me? This is the third time you have made a fool of me and haven't told me the secret of your great strength."
- 16 With such nagging she prodded him day after day until he was tired to death.
- 17 So he told her everything. "No razor has ever been used on my head," he said, "because I have been a Nazirite set apart to God since birth. If my head were shaved, my strength would leave me, and I would become as weak as any other man."
- 18 When Delilah saw that he had told her everything, she sent word to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Come back once more; he has told me everything." So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returned with the silver in their hands.
- 19 Having put him to sleep on her lap, she called a man to shave off the seven braids of his hair, and so began to subdue him. And his strength left him.
- 20 Then she called, "Samson, the Philistines are upon you!" He awoke from his sleep and thought, "I'll go out as before and shake myself free." But he did not know that the LORD had left him.
- 21 Then the Philistines seized him, gouged out his eyes and took him down to Gaza. Binding him with bronze shackles, they set him to grinding in the prison.
- 22 But the hair on his head began to grow again after it had been shaved.

>>> 기도 제목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써의 신분을 망각하고 정욕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구원과 능력의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성결한 삶을 사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6:20 “깨닫지 못하였더라” 구약에서 가장 비극적인 진술 가운데 하나다. 삼손은 자신이 소명을 저버린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또한, 블레셋 여인이 여호와께 대한 자신의 특별한 성결의 상징을 제거하도록 하려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용사가 정부의 팔에 안겨 잠을 자면서 무력하게 된 것이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본문 사사기 16:23~31 찬송가 292장

》》 본문 해설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이방인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다곤 신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며,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22절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삼손의 신분과 능력이 다시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사람 삼천 명이 삼손의 광대 놀이를 보기 위하여 모인 그 때에, 삼손은 다곤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섰습니다. 최후의 순간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28절). 삼손은 철저히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삼손의 간구를 들으셨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삼손은 신전의 두 기둥을 양손으로 꺾어내 무너뜨림으로 그곳에 모인 삼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30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삼손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삼손의 안타까운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로운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크신 긍휼을 베풀어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죄악으로부터 진실로 돌이켜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 성경 본문

- 23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 24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 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 25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 26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 27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
- 28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며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뺄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 29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 30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 31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을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 동안 지냈더라

- 23 Now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assembled to offer a great sacrifice to Dagon their god and to celebrate, saying, "Our god has delivered Samson, our enemy, into our hands."
- 24 When the people saw him, they praised their god, saying, "Our god has delivered our enemy into our hands, the one who laid waste our land and multiplied our slain."
- 25 While they were in high spirits, they shouted, "Bring out Samson to entertain us." So they called Samson out of the prison, and he performed for them. When they stood him among the pillars,
- 26 Samson said to the servant who held his hand, "Put me where I can feel the pillars that support the temple, so that I may lean against them."
- 27 Now the temple was crowded with men and women; all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were there, and on the roof were about three thousand men and women watching Samson perform.
- 28 Then Samson prayed to the LORD, "O Sovereign LORD, remember me. O God, please strengthen me just once more, and let me with one blow get revenge on the Philistines for my two eyes."
- 29 Then Samson reached toward the two central pillars on which the temple stood. Bracing himself against them, his right hand on the one and his left hand on the other,
- 30 Samson said, "Let me die with the Philistines!" Then he pushed with all his might, and down came the temple on the rulers and all the people in it. Thus he killed many more when he died than while he lived.
- 31 Then his brothers and his father's whole family went down to get him. They brought him back and buried him between Zorah and Eshtaol in the tomb of Manoah his father. He had led Israel twenty years.

》》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공활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16-27 “지붕에 있는” 신전은 가운데 트인 공간이 있었고 평평한 지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몰락한 영웅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본문 사사기 17:1~13 찬송가 527장

》》 본문 해설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진리는 사라지고,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그가 훔친 돈은 '은 천백'이었습니다(2절). 미가가 제사장을 고용하면서 제시한 연봉이 '은 열'이었음을 볼 때(10절), 은 천백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큰돈을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는 도둑을 저주했고, 두려워진 미가는 자신이 그 돈을 훔쳤다고 실토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돈을 되찾은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축복했으며(2절) 은 이백을 가져다가 한 신상을 만들게 했습니다(4절). 이것은 자신이 퍼부었던 저주로 인해 아들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미신적인 행위였습니다. 더욱이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신당을 관리하게 했습니다(5절). 이후 그는 한 레위인을 만나 해마다 은 열과 의복과 양식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12절). 자신이 제사장으로 세운 레위인을 거느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사건은 사사 시대의 종교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존재해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생각에 옳은대로만 행하는 영적으로 타락한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 성경 본문

- 1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 2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적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

- 1 Now a man named Micah from the hill country of Ephraim
- 2 said to his mother, "The eleven hundred shekels of silver that were taken from you and about which I

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3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4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이백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6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7 유다 가속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8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9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려 가노라 하는지라

10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11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12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heard you utter a curse -- I have that silver with me; I took it." Then his mother said, "The LORD bless you, my son!"

3 When he returned the eleven hundred shekels of silver to his mother, she said, "I solemnly consecrate my silver to the LORD for my son to make a carved image and a cast idol. I will give it back to you."

4 So he returned the silver to his mother, and she took two hundred shekels of silver and gave them to a silversmith, who made them into the image and the idol. And they were put in Micah's house.

5 Now this man Micah had a shrine, and he made an ephod and some idols and installed one of his sons as his priest.

6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he saw fit.

7 A young Levite from Bethlehem in Judah, who had been living within the clan of Judah,

8 left that town in search of some other place to stay. On his way he came to Micah's house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9 Micah asked him, "Where are you from?" "I'm a Levite from Bethlehem in Judah," he said, "and I'm looking for a place to stay."

10 Then Micah said to him, "Live with me and be my father and priest, and I'll give you ten shekels of silver a year, your clothes and your food."

11 So the Levite agreed to live with him, and the young man was to him like one of his sons.

12 Then Micah installed the Levite, and the young man became his priest and lived in his house.

13 And Micah said, "Now I know that the LORD will be good to me, since this Levite has become my priest."

» 기도 제목

오늘도 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짓 신앙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17:10 "은 열" 약 110g. 일 년에 노동의 대가로 이 정도 봉급을 주는 것을 보면 16:5와 17:2의 은 천백이 얼마나 많은 돈인가를 알 수 있다. 봉급과 의식주의 제안을 이 레위 청년은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러나 후에 그가 더 매력적인 제안에 무릎 꿇은 것을 볼 때 그의 결정은 물질적인 생각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너희는 가서 땅을 살피보라

본문 사사기 18:1~10 찬송가 533장

》》 본문 해설

단 지파 역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단 지파는 여호수아 당시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접경한 가나안 중부 지역을 기점으로 얻었습니다(수 19:40~48). 그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 지파는 그들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력한 그들과 피땀 흘리며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거할 기업을 찾기 위해 단 지파는 정탐꾼을 보냅니다(2절). 그들은 미가의 제사장을 보고 그에게 자신들의 길이 형통할지 물었습니다(5절). 그러자 제사장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평안의 메시지로 그들을 격려합니다(6절). 이후 그들은 평화로운 땅인 라이스에 이르렀고, 그 땅은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10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단 지파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빼앗기 쉬운 라이스 땅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단 지파 역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길, 순종의 길을 두고 다른 길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불순종이며 죄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다고 세상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 성경 본문

- 1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 때에 거주할 기업을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 때까지 기업을 분배 받지 못하였음이라
- 2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피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

- 1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And in those days the tribe of the Danites was seeking a place of their own where they might settle, because they had not yet come into an inheritance among the tribes of Israel.
- 2 So the Danites sent five warriors from Zorah and Eshtaol to spy out the land and explore it. These men represented all their clans. They told

- 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 3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 4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 5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행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 6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 7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 8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 9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 10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 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 them, "Go, explore the land." The men entered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came to the house of Micah, where they spent the night.
- 3 When they were near Micah's house, they recognized the voice of the young Levite; so they turned in there and asked him, "Who brought you here? What are you doing in this place? Why are you here?"
- 4 He told them what Micah had done for him, and said, "He has hired me and I am his priest."
- 5 Then they said to him, "Please inquire of God to learn whether our journey will be successful."
- 6 The priest answered them, "Go in peace. Your journey has the LORD's approval."
- 7 So the five men left and came to Laish, where they saw that the people were living in safety, like the Sidonians, unsuspecting and secure. And since their land lacked nothing, they were prosperous. Also, they lived a long way from the Sidonians and had no relationship with anyone else.
- 8 When they returned to Zorah and Eshtaol, their brothers asked them, "How did you find things?"
- 9 They answered, "Come on, let's attack them! We have seen that the land is very good. Aren't you going to do something? Don't hesitate to go there and take it over."
- 10 When you get there, you will find an unsuspecting people and a spacious land that God has put into your hands, a land that lacks nothing whatever."

》》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이나 눈에 보이는 쉬운 대안을 찾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185 "하나님께 물어 보아서" 계보과 가장 수호신들을 통해서 예언을 들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은 이미 지파들에 땅을 분배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여정의 성공을 보장하는 신의 뜻을 듣고 싶어 했다.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본문 사사기 18:11~20 찬송가 273장

》》 본문 해설

정탐꾼들에게서 라이스가 새로운 정착지로 적합하며 탈취하기도 쉽다는 보고를 받은 단 지파 사람들은,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라이스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11절). 라이스로 향하던 단 지파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13절).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미가의 우상들을 강탈했습니다(18절). 그들은 땅 탈취에 대한 염려와 전쟁의 불안 등을 씻어줄 대상으로 신상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미가의 풍족한 생활을 보며 자신들도 신상들을 숭배하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은 것입니다. 이제 단 지파는 그 신상을 관리할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미가의 제사장에게 지금까지의 대우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19절). 그러자 제사장은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고 단 지파를 따라 나섰습니다(20절).

단 지파가 신상을 무력으로 훔쳐 그 앞에 경배하려고 하는 모습은 사사 시대의 영적 타락과 죄악이 극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무가치한 우상 하나를 빼앗으려고 인간됨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헛된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모두 버리고 오직 참 신인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참된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 성경 본문

- 11 단 지파의 가족 중 육백 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 12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랴트여아림에 진 치니 그러므로 그 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 곳은 기랴트여아림 뒤에 있더라
- 13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 14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 15 다섯 사람이 그 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 16 단 자손 육백 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 17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육백 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 18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 19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 20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 11 Then six hundred men from the clan of the Danites, armed for battle, set out from Zorah and Eshtaol.
- 12 On their way they set up camp near Kiriath Jearim in Judah. This is why the place west of Kiriath Jearim is called Mahaneh Dan to this day.
- 13 From there they went on to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came to Micah's house.
- 14 Then the five men who had spied out the land of Laish said to their brothers, "Do you know that one of these houses has an ephod, other household gods, a carved image and a cast idol? Now you know what to do."
- 15 So they turned in there and went to the house of the young Levite at Micah's place and greeted him.
- 16 The six hundred Danites, armed for battle, stood at the entrance to the gate.
- 17 The five men who had spied out the land went inside and took the carved image, the ephod, the other household gods and the cast idol while the priest and the six hundred armed men stood at the entrance to the gate.
- 18 When these men went into Micah's house and took the carved image, the ephod, the other household gods and the cast idol, the priest said to them, "What are you doing?"
- 19 They answered him, "Be quiet! Don't say a word. Come with us, and be our father and priest. Isn't it better that you serve a tribe and clan in Israel as priest rather than just one man's household?"
- 20 Then the priest was glad. He took the ephod, the other household gods and the carved image and went along with the people.

》》 기도 제목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18-11 “육백 명” 북쪽의 새로운 정착지로 이동을 꾀하는 단 지파의 대표들이다.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도 육백 명이었음을 주목하라.

자기들을 위하여

본문 사사기 18:21~31 찬송가 38장

》》 본문 해설

단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믿음으로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싶은 편안한 땅인 라이스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 신상과 제사장을 탈취한 뒤 어린아이들과 가축,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납니다. 뒤늦게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단 자손을 따라와서 자신의 신상과 제사장을 돌려받고자 하지만, 그들보다 강했던 단 자손은 그들을 헐박하며 떠날 것을 종용합니다. 미가 역시 자신보다 강한 단 자손을 보고 돌아갑니다. 단 자손은 라이스에 이르러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칼날로 치고 성읍을 불살라 성읍을 세운 뒤 그곳에 거주합니다.

단 지파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와 악한 일을 했지만 아무 일도 없던 것은 그들에게 저주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창세 전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고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십자가 위에서 구속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그 구속의 일을 믿음으로 믿을 때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 성경 본문

- 21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 22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 23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 24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하느냐 하는지라

- 21 Putting their little children, their livestock and their possessions in front of them, they turned away and left.
- 22 When they had gone some distance from Micah's house, the men who lived near Micah were called together and overtook the Danites.
- 23 As they shouted after them, the Danites turned and said to Micah, "What's the matter with you that you called out your men to fight?"
- 24 He replied, "You took the gods I made, and my priest, and went away. What

25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26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27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28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흙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29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30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31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else do I have? How can you ask, 'What's the matter with you?'"

25 The Danites answered, "Don't argue with us, or some hot-tempered men will attack you, and you and your family will lose your lives."

26 So the Danites went their way, and Micah, seeing that they were too strong for him, turned around and went back home.

27 Then they took what Micah had made, and his priest, and went on to Laish, against a peaceful and unsuspecting people. They attacked them with the sword and burned down their city.

28 There was no one to rescue them because they lived a long way from Sidon and had no relationship with anyone else. The city was in a valley near Beth Rehob. The Danites rebuilt the city and settled there.

29 They named it Dan after their forefather Dan, who was born to Israel - though the city used to be called Laish.

30 There the Danites set up for themselves the idols, and Jonathan son of Gershom, the son of Moses, and his sons were priests for the tribe of Dan until the time of the captivity of the land.

31 They continued to use the idols Micah had made, all the time the house of God was in Shiloh.

》》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1) 또는 므낫세의

18:30 **“요나단”** 여기서 레위인이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인 것으로 밝혀진다. 모세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후대 서기관들이 이름을 약간 수정하여 ‘므낫세’로 읽도록 했다. 만일 ‘요나단’이 모세의 손자라면 이 장에 나오는 사건들은 사사기 초반부에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

레위 사람이 첩을

본문 사사기 19:1~9 찬송가 463장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는데, 그녀는 행음하여 남편을 떠나 넉 달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그 첩이 행음했음에도 그녀를 다시 찾아오려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녀를 데려오고자 할 때 그 첩의 아버지가 그를 환영하며 잘 대접합니다. 자기 딸을 데려가서 잘 살아달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레위사람도, 첩도, 첩의 아버지도 옳고 그름의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에 자기 소견대로만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일들이 잘되는 것 같았지만, 이는 결국 그녀가 죽어 토막이 나는 사건의 전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 이는 오히려 죄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쾌락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때에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 성경 본문

- 1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침을 맞이하였더니
- 2 그 침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 3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 4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삼 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 5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 6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 7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 8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 9 그 사람이 침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 1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Now a Levite who lived in a remote area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took a concubine from Bethlehem in Judah.
- 2 But she was unfaithful to him. She left him and went back to her father's house in Bethlehem, Judah. After she had been there four months,
- 3 her husband went to her to persuade her to return. He had with him his servant and two donkeys. She took him into her father's house, and when her father saw him, he gladly welcomed him.
- 4 His father-in-law, the girl's father, prevailed upon him to stay; so he remained with him three days, eating and drinking, and sleeping there.
- 5 On the fourth day they got up early and he prepared to leave, but the girl's father said to his son-in-law, "Refresh yourself with something to eat; then you can go."
- 6 So the two of them sat down to eat and drink together. Afterward the girl's father said, "Please stay tonight and enjoy yourself."
- 7 And when the man got up to go, his father-in-law persuaded him, so he stayed there that night.
- 8 On the morning of the fifth day, when he rose to go, the girl's father said, "Refresh yourself. Wait till afternoon!" So the two of them ate together.
- 9 Then when the man, with his concubine and his servant, got up to leave, his father-in-law, the girl's father, said, "Now look, it's almost evening. Spend the night here; the day is nearly over. Stay and enjoy yourself. Early tomorrow morning you can get up and be on your way home."

》》 기도 제목

십자가 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죄와 끊지 못할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결단하여 끊게 하옵소서.

19:1 "레위 사람" 17~18장의 레위 사람과 달리 이 사람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본문 사사기 19:10~21 찬송가 607장

》》 본문 해설

레위 사람이 첩과 함께 나와서 이방 땅인 여부스에 가까이 도착할 때쯤 해가 지려 했습니다(11절). 레위 사람의 종이 여부스에 들어가 유숙하자고 했지만, 그는 이방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 없다며 기브아로 나아갑니다(15절). 레위인은 자신이 이미 죄를 범했으면서도,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이면 우상숭배에 빠질까 봐 그들과의 혼인을 금했을 뿐, 같이 식사하는 것과 숙박하는 것을 금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율법을 만들어서 지킨 것입니다. 이는 외식적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며, 그 외식이 올무가 되어 그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기브아에 들어가서 한 노인의 청으로 유숙하게 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노인의 물음에 그는 유다 베들레헬에서 와서 에브라임 산지로 간다고 말합니다(18절). 이는 자신에게 믿음의 삶이 전혀 없는데도 종교적 색깔만은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노인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는 물음은 그를 회개시키려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했는데, 그는 삶의 더러움을 회개하지 못한 채 그곳에 유숙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 성경 본문

- 10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양장 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 11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오 하니
- 12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

10 But, unwilling to stay another night, the man left and went toward Jebus (that is, Jerusalem), with his two saddled donkeys and his concubine.

11 When they were near Jebus and the day was almost gone, the servant said to his master, "Come, let's stop at this city of the Jebusites and spend the night."

12 His master replied, "No. We won't go into an alien city, whose people are

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 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13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14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15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16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주하는 자요 그 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17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 서 왔느냐 하니

18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 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19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짚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20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21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not Israelites. We will go on to Gibeah."

13 He added, "Come, let's try to reach Gibeah or Ramah and spend the night in one of those places."

14 So they went on, and the sun set as they neared Gibeah in Benjamin.

15 There they stopped to spend the night. They went and sat in the city square, but no one took them into his home for the night.

16 That evening an old man from the hill country of Ephraim, who was living in Gibeah (the men of the place were Benjamites), came in from his work in the fields.

17 When he looked and saw the traveler in the city square, the old man asked, "Where are you going? Where did you come from?"

18 He answered, "We are on our way from Bethlehem in Judah to a remote area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where I live. I have been to Bethlehem in Judah and now I am going to the house of the LORD. No one has taken me into his house.

19 We have both straw and fodder for our donkeys and bread and wine for ourselves your servants -- me, your maidservant, and the young man with us. We don't need anything."

20 "You are welcome at my house," the old man said. "Let me supply whatever you need. Only don't spend the night in the square."

21 So he took him into his house and fed his donkeys. After they had washed their feet, they had something to eat and drink.

≫ 기도 제목

아버지! 주님께서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실 때에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여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19:21 "그들이 발을 씻고" 고대 근동에서는 여행자들이 길을 길을 때 보통 샌들을 신고 다녀서 흙먼지가 묻은 발을 씻도록 해주는 것이 현대의 증거이다.

이같은 악행

본문 사사기 19:22~30 찬송가 274장

》》 본문 해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레위 사람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없는 즐거움의 결과가 얼마나 큰 고통을 만들어 내는지 본문은 말씀합니다. 드디어 성읍의 불량배들이 동성애를 요구하며 들이닥칩니다(22절). 노인과 레위 사람은 처녀 딸과 첩을 내어주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에 레위 사람은 첩을 문밖으로 끌어내어 밤새도록 그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합니다(25절). 레위인은 자신의 성적 타락이 결국 동성애까지 몰고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채 첩에게 문제 해결을 뒤집어 씌웠고, 이에 일은 점점 더 커집니다. 밤새도록 능욕당한 첩이 다음날 죽어있음을 확인한 레위인은 그 시체를 열두 덩이로 찢어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냅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일이 어찌 생겼을까 말하며 놀라워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런 일이 생겼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악행만을 처단하려 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모두 자신의 죄를 돌이켜 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평안히 살기를 원하시면서도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길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의지하길 소원합니다.

» 성경 본문

- 22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 23 집 주인 그 사람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야니라 네 형제들이 청하노니 이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 24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에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 25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 26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서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 있더라
- 27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 28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 29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찢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 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 30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 22 While they were enjoying themselves, some of the wicked men of the city surrounded the house. Pounding on the door, they shouted to the old man who owned the house, "Bring out the man who came to your house so we can have sex with him."
- 23 The owner of the house went outside and said to them, "No, my friends, don't be so vile. Since this man is my guest, don't do this disgraceful thing."
- 24 Look, here is my virgin daughter, and his concubine. I will bring them out to you now, and you can use them and do to them whatever you wish. But to this man, don't do such a disgraceful thing."
- 25 But the men would not listen to him. So the man took his concubine and sent her outside to them, and they raped her and abused her throughout the night, and at dawn they let her go.
- 26 At daybreak the woman went back to the house where her master was staying, fell down at the door and lay there until daylight.
- 27 When her master got up in the morning and opened the door of the house and stepped out to continue on his way, there lay his concubine, fallen in the doorway of the house, with her hands on the threshold.
- 28 He said to her, "Get up; let's go." But there was no answer. Then the man put her on his donkey and set out for home.
- 29 When he reached home, he took a knife and cut up his concubine, limb by limb, into twelve parts and sent them into all the areas of Israel.
- 30 Everyone who saw it said, "Such a thing has never been seen or done, not since the day the Israelites came up out of Egypt. Think about it! Consider it! Tell us what to do!"

» 기도 제목

우리가 의롭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결정도 주님 없이는 악할 수밖에 없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19:22 "불량배들" 히브리 원어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이들의 동성애를 가리키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이 표현이 우상숭배, 술 취함, 그리고 반역과도 연관되어 나온다.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본문 사사기 20:1~16 찬송가 295장

» 본문 해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남의 죄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논의하기 위해 사십만 명의 칼을 빼는 자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2절). 이곳에 모인 그들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먼저 레위 사람은 자신이 침을 가진 것부터 회개했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형제 중 한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통회 자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베냐민 지파의 잘못만을 증언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니 일은 더욱 크게 번졌고 한 지파가 소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를 칼로서 싸워 처단할 것을 계획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비를 뽑아, 사십만 명 중에 십 분의 일을 추려 정예병사를 만들어 베냐민을 징계하려 합니다(10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악한 일의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레위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 한마음으로 합심합니다(11절). 왜 이렇게 쉽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서 자신들은 그 죄에서 자유롭고 의로운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 살 길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 성경 본문

- 1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 2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사십만 명이었으며
- 3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 4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침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 5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지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 1 Then all the Israelites from Dan to Beersheba and from the land of Gilead came out as one man and assembled before the LORD in Mizpah.
- 2 The leaders of all the people of the tribes of Israel took their places in the assembly of the people of God, four hundred thousand soldiers armed with swords.
- 3 (The Benjaminites heard that the Israelites had gone up to Mizpah.) Then the Israelites said, "Tell us how this awful thing happened."
- 4 So the Levite, the husband of the murdered woman, said, "I and my concubine came to Gibeah in Benjamin to spend the night.
- 5 During the night the men of Gibeah came after me and surrounded the house,

- 있던 짐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 6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커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을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 7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 8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 9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 10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 명에 열 명, 천 명에 백 명, 만 명에 천 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 11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 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 12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나
- 13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 14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 15 그 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이만 육천 명이었도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칠백 명인데
- 16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칠백 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 intending to kill me. They raped my concubine, and she died.
- 6 I took my concubine, cut her into pieces and sent one piece to each region of Israel's inheritance, because they committed this lewd and disgraceful act in Israel.
- 7 Now, all you Israelites, speak up and give your verdict."
- 8 All the people rose as one man, saying, "None of us will go home. No, not one of us will return to his house.
- 9 But now this is what we'll do to Gibeah: We'll go up against it as the lot directs.
- 10 We'll take ten men out of every hundred from all the tribes of Israel, and a hundred from a thousand, and a thousand from ten thousand, to get provisions for the army. Then, when the army arrives at Gibeah in Benjamin, it can give them what they deserve for all this vileness done in Israel."
- 11 So all the men of Israel got together and united as one man against the city.
- 12 The tribes of Israel sent men throughout the tribe of Benjamin, saying, "What about this awful crime that was committed among you?"
- 13 Now surrender those wicked men of Gibeah so that we may put them to death and purge the evil from Israel." But the Benjaminites would not listen to their fellow Israelites.
- 14 From their towns they came together at Gibeah to fight against the Israelites.
- 15 At once the Benjaminites mobilized twenty-six thousand swordsmen from their towns, in addition to seven hundred chosen men from those living in Gibeah.
- 16 Among all these soldiers there were seven hundred chosen men who were left-handed, each of whom could sling a stone at a hair and not miss.

▶ 기도 제목

남의 죄악은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본인의 죄악에는 예민해 하며 통회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2016 "돌을 던지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 주었듯이 물매는 매우 효과적인 무기였다. 물맷돌은 무게가 453.5g 이상 나가는 돌로써 시속 144.8~160.9km까지 던질 수 있다.

여호와께 물으니라

본문 사사기 20:17~35 찬송가 425장

》》 본문 해설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 벰엘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쭙어 봅니다. 이들은 싸울 것을 미리 다 걱정하고 왔기에 하나님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베냐민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번째로 올며 여호와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치라고는 말씀하시지만 베냐민을 그들 손에 넘겨주겠다는 약속은 안 하십니다. 그러니 이들은 또 패배합니다. 세 번째에는 이들은 베냐민이 자신들의 형제임을 인식하면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며 다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 손에 넘겨주리라”고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진정한 순종을 통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절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올게 됩니다.

그들의 울음은 늘 가짜였습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 뜻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뜻을 조율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조율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것을 본받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는 인생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 성경 본문

- 17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사십만 명이니 다 전사라
- 18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벰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 지니라 하시니라
- 19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 20 이스라엘 자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

- 17 Israel, apart from Benjamin, mustered four hundred thousand swordsmen, all of them fighting men.
- 18 The Israelites went up to Bethel and inquired of God. They said, "Who of us shall go first to fight against the Benjaminites?" The LORD replied, "Judah shall go first."
- 19 The next morning the Israelites got up and pitched camp near Gibeah.
- 20 The men of Israel went out to fight, the Benjaminites and took up battle positions against them at Gibeah.

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21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이만 이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22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23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
 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
 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4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
 가매
 25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팔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6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엘에 이르
 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
 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28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
 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
 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니라
 29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30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
 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31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피임에 빠져 성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골 한쪽은 베엘로 올라가는 길
 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
 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삼십 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32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
 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
 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에서 큰 길로 쫓아내자 하고
 33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
 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쏠아져 나왔더라
 34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아에 이
 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
 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3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
 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이만 오천백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1 The Benjamites came out of Gibeah and cut
 down twenty-two thousand Israelites on the
 battlefield that day.
 22 But the men of Israel encouraged one another
 and again took up their positions where they
 had stationed themselves the first day.
 23 The Israelites went up and wept before the
 LORD until evening, and they inquired of the
 LORD. They said, "Shall we go up again to
 battle against the Benjamites, our brothers?"
 The LORD answered, "Go up against them."
 24 Then the Israelites drew near to Benjamin the
 second day.
 25 This time, when the Benjamites came out from
 Gibeah to oppose them, they cut down another
 eighteen thousand Israelites, all of them armed
 with swords.
 26 Then the Israelites, all the people, went up to
 Bethel, and there they sat weeping before the
 LORD. They fasted that day until evening and
 presented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to the LORD.
 27 And the Israelites inquired of the LORD. (In
 those days the ark of the covenant of God was
 there,
 28 with Phinehas son of Eleazar, the son of Aaron,
 ministering before it.) They asked, "Shall we go
 up again to battle with Benjamin our brother,
 or not?" The LORD responded, "Go, for
 tomorrow I will give them into your hands."
 29 Then Israel set an ambush around Gibeah.
 30 They went up against the Benjamites on the
 third day and took up positions against Gibeah
 as they had done before.
 31 The Benjamites came out to meet them and
 were drawn away from the city. They began to
 inflict casualties on the Israelites as before, so
 that about thirty men fell in the open field and
 on the roads -- the one leading to Bethel and
 the other to Gibeah.
 32 While the Benjamites were saying, "We are
 defeating them as before," the Israelites were
 saying, "Let's retreat and draw them away from
 the city to the roads."
 33 All the men of Israel moved from their places
 and took up positions at Baal Tamar, and the
 Israelite ambush charged out of its place on the
 west of Gibeah.
 34 Then ten thousand of Israel's finest men made
 a frontal attack on Gibeah. The fighting was so
 heavy that the Benjamites did not realize how
 near disaster was.
 35 The LORD defeated Benjamin before Israel,
 and on that day the Israelites struck down
 25,100 Benjamites, all armed with swords.

》》 기도 제목

아버지여! 나의 뜻은 아버지의 뜻에 조율되어 녹아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0:28 "베느하스" 비느하스는 여호수아 시대에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아직도 제사장으로 있
 는 사실은 이 사건이 사사기 초반에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다.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본문 사사기 20:36~48 찬송가 426장

》》 본문 해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뽑은 정예병사 사만 명은 모두 베냐민 지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21, 25절). 그 후에 이스라엘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릴 화를 멈추시고, 대신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를 향해 칼을 드십니다. 이후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패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이들의 진멸이 아닌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에는 칼을 빼는 자 이만육천 명 중에 이만오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육백 명만이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서 넉 달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는 베냐민 족속을 형제라고 고백했지만(28절)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는 그들의 성읍과 가족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불사릅니다(48절). 이것은 형제에게 하는 것이 아니며, 형제를 원수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실패를 볼 때 자기를 먼저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한 후에 형제를 사랑으로 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요, 사단이요,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이지 형제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 성경 본문

36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37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찢음이라
38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39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

36 Then the Benjamites saw that they were beaten. Now the men of Israel had given way before Benjamin, because they relied on the ambush they had set near Gibeah.

37 The men who had been in ambush made a sudden dash into Gibeah, spread out and put the whole city to the sword.

38 The men of Israel had arranged with the ambush that they should send up

은 이스라엘 사람 삼십 명 가량을 쳐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40 연기 구름이 기둥 같이 성을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41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42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43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44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만 팔천 명이니 다 용사더라

45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오천 명을 이삭 줄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이천 명을 죽였으니

46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없던 것이 모두 이만 오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47 베냐민 사람 육백 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48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a great cloud of smoke from the city,
 39 and then the men of Israel would turn in the battle. The Benjamites had begun to inflict casualties on the men of Israel (about thirty), and they said, "We are defeating them as in the first battle."
 40 But when the column of smoke began to rise from the city, the Benjamites turned and saw the smoke of the whole city going up into the sky.
 41 Then the men of Israel turned on them, and the men of Benjamin were terrified, because they realized that disaster had come upon them.
 42 So they fled before the Israelites in the direction of the desert, but they could not escape the battle. And the men of Israel who came out of the towns cut them down there.
 43 They surrounded the Benjamites, chased them and easily overran them in the vicinity of Gibeah on the east.
 44 Eighteen thousand Benjamites fell, all of them valiant fighters.
 45 As they turned and fled toward the desert to the rock of Rimmon, the Israelites cut down five thousand men along the roads. They kept pressing after the Benjamites as far as Gidom and struck down two thousand more.
 46 On that day twenty-five thousand Benjamite swordsmen fell, all of them valiant fighters.
 47 But six hundred men turned and fled into the desert to the rock of Rimmon, where they stayed four months.
 48 The men of Israel went back to Benjamin and put all the towns to the sword, including the animals and everything else they found. All the towns they came across they set on fire.

》》 기도 제목

아버지여,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삶의 패배와 좌절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아버지와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20:47 “육백 명” 이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베냐민 지파는 진멸되었을 것이다.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본문 사사기 21:1~12 찬송가 204장

》》 본문 해설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로 하면서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시집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600명밖에 남지 않은 베냐민 지파를 본 그들은 자신들의 맹세가 경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며 그분을 원망합니다(3절). 이런 반응은 우리 주위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그를 마치 죽을죄라도 지은 것처럼 매도하거나 따돌리고 상처 주는 것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경솔하게 맹세를 하거나, 감정이 앞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내세운 해결책 또한 너무 경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그 성읍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만 남긴 뒤 모두 죽였습니다(10절).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해 또 다른 동족을 무참히 살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과 긍휼이 빠진 인간적인 해결책은 언제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는 매일의 말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성경 본문

- 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 2 백성이 벰엘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 3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 4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 1 The men of Israel had taken an oath at Mizpah: "Not one of us will give his daughter in marriage to a Benjamite."
- 2 The people went to Bethel, where they sat before God until evening, raising their voices and weeping bitterly.
- 3 "O LORD, the God of Israel," they cried, "why has this happened to Israel? Why should one tribe be missing from Israel today?"

-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 5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 6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 7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 8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 9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 10 회중이 큰 용사 만 이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 11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 12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사백 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 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 4 Early the next day the people built an altar and presented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 5 Then the Israelites asked, "Who from all the tribes of Israel has failed to assemble before the LORD?" For they had taken a solemn oath that anyone who failed to assemble before the LORD at Mizpah should certainly be put to death.
- 6 Now the Israelites grieved for their brothers, the Benjamites. "Today one tribe is cut off from Israel," they said.
- 7 "How can we provide wives for those who are left, since we have taken an oath by the LORD not to give them any of our daughters in marriage?"
- 8 Then they asked, "Which one of the tribes of Israel failed to assemble before the LORD at Mizpah?" They discovered that no one from Jabesh Gilead had come to the camp for the assembly.
- 9 For when they counted the people, they found that none of the people of Jabesh Gilead were there.
- 10 So the assembly sent twelve thousand fighting men with instructions to go to Jabesh Gilead and put to the sword those living there, including the women and children.
- 11 "This is what you are to do," they said. "Kill every male and every woman who is not a virgin."
- 12 They found among the people living in Jabesh Gilead four hundred young women who had never slept with a man, and they took them to the camp at Shiloh in Canaan.

》》 기도 제목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1:22 "맹세하여" 여호와와 이름으로 하였을 이 맹세는 일상적 맹세가 아니었기에 이것을 깨뜨리면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본문 사사기 21:13~25 찬송가 405장

》》 본문 해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베냐민 남자들을 위해 생각해 낸 두 번째 대책은 '실로의 딸들'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느 거룩한 날에 납치극과 같은 일을 하도록 지시한 이 결정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21절). 동성애와 성적 문란에 빠진 기브아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베냐민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도덕적인 기준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각자 삶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성경은 제일 마지막에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해 둡니다. 바로 그들에게 왕이 없어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25절). 사사기 전체에 기록된 모든 혼란의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며,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가 왕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사사기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혼란함, 타락, 어리석음, 그리고 죄 가운데 헤매게 됩니다.

》》 성경 본문

- 13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14 그 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 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15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16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

- 13 Then the whole assembly sent an offer of peace to the Benjamites at the rock of Rimmon.
 14 So the Benjamites returned at that time and were given the women of Jabesh Gilead who had been spared. But there were not enough for all of them.
 15 The people grieved for Benjamin, because the LORD had made a gap in the tribes of Israel.

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17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 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18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19 또 이르되 보라 베엘 북쪽 르보나 남쪽 베엘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 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20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21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22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23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24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 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5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6 And the elders of the assembly said, "With the women of Benjamin destroyed, how shall we provide wives for the men who are left?"

17 The Benjamite survivors must have heirs," they said, "so that a tribe of Israel will not be wiped out.

18 We can't give them our daughters as wives, since we Israelites have taken this oath: 'Cursed be anyone who gives a wife to a Benjamite.'

19 But look, there is the annual festival of the LORD in Shiloh, to the north of Bethel, and east of the road that goes from Bethel to Shechem, and to the south of Lebonah."

20 So they instructed the Benjamites, saying, "Go and hide in the vineyards,

21 and watch. When the girls of Shiloh come out to join in the dancing, then rush from the vineyards and each of you seize a wife from the girls of Shiloh and go to the land of Benjamin.

22 When their fathers or brothers complain to us, we will say to them, 'Do us a kindness by helping them, because we did not get wives for them during the war, and you are innocent, since you did not give your daughters to them.'"

23 So that is what the Benjamites did. While the girls were dancing, each man caught one and carried her off to be his wife. Then they returned to their inheritance and rebuilt the towns and settled in them.

24 At that time the Israelites left that place and went home to their tribes and clans, each to his own inheritance.

25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he saw fit.

》》 기도 제목

내 생각과 판단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걷게 하소서.

21:22 "우리에게 시비하면" 유괴당한 여자의 형제들이 와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관례였다. 장로들이 젊은 여인들의 가정에 협조를 구할 것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라

본문 룻기 1:1~10 찬송가 405장

》》 본문 해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자 좀 더 환경이 좋은 모압이라는 곳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그는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의 선택은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지만, 그는 자기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선택보다, 그 선택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인가를 살펴보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잘살아 보려고 떠났던 모압에의 이주는 성공적이지 못하였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옴이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3절). 나옴이의 인생은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만이 참된 기쁨을 가지는 비결입니다.

>>> 성경 본문

- 1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 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키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타 사람들이다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 3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 4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룓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십 년쯤에
- 5 말론과 키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 6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 7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 8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 9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 10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 지라

- 1 In the days when the judges ruled,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and a man from Bethlehem in Judah, together with his wife and two sons, went to live for a while in the country of Moab.
- 2 The man's name was Elimelech, his wife's name Naomi, and the names of his two sons were Mahlon and Kilion. They were Ephrathites from Bethlehem, Judah. And they went to Moab and lived there.
- 3 Now Elimelech, Naomi's husband, died, and she was left with her two sons.
- 4 They married Moabite women, one named Orpah and the other Ruth. After they had lived there about ten years,
- 5 both Mahlon and Kilion also died, and Naomi was left without her two sons and her husband.
- 6 When she heard in Moab that the LORD had come to the aid of his people by providing food for them, Naomi and her daughters-in-law prepared to return home from there.
- 7 With her two daughters-in-law she left the place where she had been living and set out on the road that would take them back to the land of Judah.
- 8 Then Naomi said to her two daughters-in-law, "Go back, each of you, to your mother's home. May the LORD show kindness to you, as you have shown to your dead and to me.
- 9 May the LORD grant that each of you will find rest in the home of another husband." Then she kissed them and they wept aloud
- 10 and said to her, "We will go back with you to your people."

>>> 기도 제목

삶의 위기 속에서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15 "말론" 룓의 첫 번째 남편으로 그 뜻은 "악함"을 의미한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본문 룯기 1:11~22 찬송가 298장

》》 본문 해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룯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룯은 나오미에게 자신의 결심을 단호하게 밝힙니다. 그녀는 나오미가 어디를 가든지 자신도 함께 가며, 그녀와 한 백성이 되고 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16절). 이 선택은 영적으로 크나큰 갈림길이 됩니다. 룯은 나오미가 속한 민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자신의 이기심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나오미를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도 룯과 같이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오미는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하셨으므로, 자신을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가 아닌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20절). 나오미는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난날의 고통과 상처는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성경 본문

11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이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 내 딸들이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단들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룯은 그를 붙좃았더라

11 But Naomi said, "Return home, my daughters. Why would you come with me? Am I going to have any more sons, who could become your husbands?
12 Return home, my daughters; I am too old to have another husband. Even if I thought there was still hope for me -- even if I had a husband tonight and then gave birth to sons --
13 would you wait until they grew up? Would you remain unmarried for them? No, my daughters. It is more bitter for me than for you, because the LORD's hand has gone out

15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 루이가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음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 나오미가 루이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9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¹나오미냐 하는지라

20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²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를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2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루이와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against me!"

14 At this they wept again. Then Orpah kissed her mother-in-law good-by, but Ruth clung to her.

15 "Look," said Naomi, "your sister-in-law is going back to her people and her gods. Go back with her."

16 But Ruth replied, "Don't urge me to leave you or to turn back from you.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stay I will stay.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17 Where you die I will die, and there I will be buried. May the LORD deal with me, be it ever so severely, if anything but death separates you and me."

18 When Naomi realized that Ruth was determined to go with her, she stopped urging her.

19 So the two women went on until they came to Bethlehem. When they arrived in Bethlehem, the whole town was stirred because of them, and the women exclaimed, "Can this be Naomi?"

20 "Don't call me Naomi," she told them. "Call me Mara, because the Almighty has made my life very bitter.

21 I went away full, but the LORD has brought me back empty. Why call me Naomi? The LORD has afflicted me; the Almighty has brought misfortune upon me."

22 So Naomi returned from Moab accompanied by Ruth the Moabitess, her daughter-in-law, arriving in Bethlehem as the barley harvest was beginning.

》》 기도 제목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구하며 고백하게 하소서.

1) 회락 2) 괴로움

122 "추수" 고대 가나안에서는 4월과 5월에 곡식을 추수했다.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밀은 몇 주 후에 했다. 추수 과정은 먼저 남자들이 낫으로 곡식을 베면, 여자들이 곡식을 단으로 묶고 뒤에 남겨진 이삭을 주웠다. 그 뒤 나귀나 수레를 동원해 이 단을 타작 마당으로 옮겼다. 타작은 가축들이 밟거나, 혹은 타작기나 수레바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했다. 곡식을 키로 까부르고 체질을 한 뒤 자루에 담아서 추수를 완료했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본문 룻기 2:1~13 찬송가 288장

» 본문 해설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자신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자청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우연히 간 곳이 바로 장차 그녀의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3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따라나선 룻의 결단을 보시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룻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을 소원하고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룻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친절한 말로 그들을 격려합니다(4절). 나아가 그는 자기 땅에 와서 이삭을 줍는 룻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자기 밭에서 일하도록 허락합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이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를 공경하고 있음을 들었고, 그래서 룻을 돕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 행위를 갚으시고 복을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을 나타내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성경 본문

- 1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 2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같지이다 하매
- 3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 1 Now Naomi had a relative on her husband's side, from the clan of Elimelech, a man of standing, whose name was Boaz.
- 2 And Ruth the Moabitess said to Naomi, "Let me go to the fields and pick up the leftover grain behind anyone in whose eyes I find favor." Naomi said to her, "Go ahead, my daughter."
- 3 So she went out and began to glean in the fields behind the harvesters. As it turned out, she found herself working in a

- 4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 5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 6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 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 7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쉼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 8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 9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 10 롯이 었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 11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 12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 13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 field belonging to Boaz, who was from the clan of Elimelech.
- 4 Just then Boaz arrived from Bethlehem and greeted the harvesters, "The LORD be with you!" "The LORD bless you!" they called back.
- 5 Boaz asked the foreman of his harvesters, "Whose young woman is that?"
- 6 The foreman replied, "She is the Moabitess who came back from Moab with Naomi.
- 7 She said, 'Please let me glean and gather among the sheaves behind the harvesters.' She went into the field and has worked steadily from morning till now, except for a short rest in the shelter."
- 8 So Boaz said to Ruth, "My daughter, listen to me. Don't go and glean in another field and don't go away from here. Stay here with my servant girls.
- 9 Watch the field where the men are harvesting, and follow along after the girls. I have told the men not to touch you. And whenever you are thirsty, go and get a drink from the water jars the men have filled."
- 10 At this, she bowed down with her face to the ground. She exclaimed, "Why have I found such favor in your eyes that you notice me -- a foreigner?"
- 11 Boaz replied, "I've been told all about what you have done for your mother-in-law since the death of your husband -- how you left your father and mother and your homeland and came to live with a people you did not know before.
- 12 May the LORD repay you for what you have done. May you be richly rewarded by the LORD, the God of Israel, under whose wings you have come to take refuge."
- 13 "May I continue to fi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she said. "You have given me comfort and have spoken kindly to your servant -- though I do not have the standing of one of your servant girls."

》》 기도 제목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늘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소서.

1) 부호

22 "이삭을 줍겠나이다" 모세의 율법은 지주들에게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두어 가난한 사람이나 객, 그리고 과부나 고아들이 주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본문 룯기 2:14~23 찬송가 526장

》》 본문 해설

룯은 자신을 위로하는 보아스에게 최대한 겸손하게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될 때 이처럼 참된 겸손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룯을 식사에 초대하며, 나아가 자신의 종들에게 룯이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주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합니다(16절). 이것은 룯에게 친절을 베풀면서도 결코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종종 조금의 구제를 하면서도 그것을 알리고 자랑거리로 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도 항상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행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이삭을 줌과 돌아온 룯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20절).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그의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일순간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지만, 그녀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그녀의 가문까지도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십니다. 혹시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이 모압이라도,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행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 성경 본문

- 14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붉은 곡식을 주매 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 15 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줌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 14 At mealtime Boaz said to her, "Come over here. Have some bread and dip it in the wine vinegar." When she sat down with the harvesters, he offered her some roasted grain. She ate all she wanted and had some left over.
- 15 As she got up to glean, Boaz gave orders to his men, "Even if she gathers

16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줌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7 룯이 밭에서 저녁까지 줌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
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18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
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19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거
를 원하노라 하니 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
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
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20 나옴이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
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
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옴이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
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
니라

21 모압 여인 룯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22 나옴이가 며느리 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
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3 이에 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
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among the sheaves, don't embarrass
her.

16 Rather, pull out some stalks for her
from the bundles and leave them for
her to pick up, and don't rebuke her."

17 So Ruth gleaned in the field until
evening. Then she threshed the barley
she had gathered, and it amounted to
about an ephah.

18 She carried it back to town, and her
mother-in-law saw how much she had
gathered. Ruth also brought out and
gave her what she had left over after
she had eaten enough.

19 Her mother-in-law asked her, "Where
did you glean today? Where did you
work? Blessed be the man who took
notice of you!" Then Ruth told her
mother-in-law about the one at
whose place she had been working.
"The name of the man I worked with
today is Boaz," she said.

20 "The LORD bless him!" Naomi said to
her daughter-in-law. "He has not
stopped showing his kindness to the
living and the dead." She added, "That
man is our close relative; he is one of
our kinsman-redeemers."

21 Then Ruth the Moabitess said, "He
even said to me, 'Stay with my
workers until they finish harvesting all
my grain.'"

22 Naomi said to Ruth her daughter-in-
law, "It will be good for you, my
daughter, to go with his girls, because
in someone else's field you might be
harméd."

23 So Ruth stayed close to the servant
girls of Boaz to glean until the barley
and wheat harvests were finished.
And she lived with her mother-in-law.

》》 기도 제목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1) 그들이 2) 레 25:25를 보라

2:20 "기업을 무를 자" 기업 무름은 룯기의 핵심 개념이다. 기업 무를 자는 친척 가운데 궁핍한 자들의 이익
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죽은 형제에게 후사를 낳아 주는 일, 가난한 친척이 다른 지파 사람에게 판 땅
을 무르는 일, 노예로 팔린 자를 무르는 일, 그리고 살해당한 친척의 피를 보복하는 일 등이다.

기업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본문 룯기 3:1~18 찬송가 415장

》》 본문 해설

나오미는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룯을 위하여 보아스와의 결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마음에는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룯의 행복을 위하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룯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나오미는 룯의 기존 문화와는 전혀 다른 것을 지시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9절)라는 룯의 말은 청혼을 의미합니다. 룯은 청혼의 구체적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9절). 룯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집안의 기업을 회복시키기 위한 결혼을 원했던 것입니다. 룯은 가장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순간에 가장 희생적인 선택을 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룯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그녀가 자칫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그녀가 현숙한 여인임을 인정해 줍니다. 또 기꺼이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보리 여섯 되를 챙겨주어 보냅니다(15, 17절). 이것은 룯의 청혼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 나오미는, 보아스란 사람을 믿고 기다려도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 성경 본문

- 1 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 2 네가 함께 하던 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물리라
- 3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 4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 5 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 1 One day Naomi her mother-in-law said to her, "My daughter, should I not try to find a home for you, where you will be well provided for?"
- 2 'Is not Boaz, with whose servant girls you have been, a kinsman of ours? Tonight he will be winnowing barley on the threshing floor.
- 3 Wash and perfume yourself, and put on your best clothes. Then go down to the threshing floor, but don't let him know you are there until he has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 4 When he lies down, note the place where he is lying. Then go and uncover his feet and lie down. He will tell you what to do."

6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7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룯이 거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8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10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배운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1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2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무를 자이나 기업 무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14 룯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15 보아스가 이르되 네 잠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룯에게 주워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16 이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룯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17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 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18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5 "I will do whatever you say," Ruth answered.
 6 So she went down to the threshing floor and did everything her mother-in-law told her to do.
 7 When Boaz had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and was in good spirits, he went over to lie down at the far end of the grain pile. Ruth approached quietly, uncovered his feet and lay down.
 8 In the middle of the night something startled the man, and he turned and discovered a woman lying at his feet.
 9 "Who are you?" he asked. "I am your servant Ruth," she said. "Spread the corner of your garment over me, since you are a kinsman-redeemer."
 10 "The LORD bless you, my daughter," he replied. "This kindness is greater than that which you showed earlier: You have not run after the younger men, whether rich or poor.
 11 And now, my daughter, don't be afraid. I will do for you all you ask. All my fellow townsmen know that you are a woman of noble character.
 12 Although it is true that I am near of kin, there is a kinsman-redeemer nearer than I.
 13 Stay here for the night, and in the morning if he wants to redeem, good; let him redeem. But if he is not willing, as surely as the LORD lives I will do it. Lie here until morning."
 14 So she lay at his feet until morning, but got up before anyone could be recognized; and he said, "Don't let it be known that a woman came to the threshing floor."
 15 He also said, "Bring me the shawl you are wearing and hold it out." When she did so, he poured into it six measures of barley and put it on her. Then he went back to town.
 16 When Ruth came to her mother-in-law, Naomi asked, "How did it go, my daughter?" Then she told her everything Boaz had done for her
 17 and added, "He gave me these six measures of barley, saying, 'Don't go back to your mother-in-law empty-handed.'"
 18 Then Naomi said, "Wait, my daughter, until you find out what happens. For the man will not rest until the matter is settled today."

>>> 기도 제목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인애와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고 신실한 자가 되게 하소서.

1) 루디아와 라틴 번역에는, 이위 주니 그가 성으로 돌아가니라 2) 너는 누구냐

34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나오미의 지시는 경솔해 보이지만 나오미와 룯, 그리고 보아스의 도덕적 순결성은 결코 의심할 수 없다. 나오미의 목적은 보아스에게 기업 무를 자의 의무를 인식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룯의 행동은 청혼을 뜻했다.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본문 룯기 4:1~12 찬송가 487장

》 본문 해설

보아스는 재판소의 역할을 하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기업 무를 자 일 순위의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엘리멜렉의 토지를 무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룯과 결혼한 후 태어날 아기에겐 기업이 모두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손해를 보지 않고자 신을 벗으면서 거절합니다. 원래는 그의 후손이 다윗의 집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을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불순종으로 그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보아스는 이 모든 일을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증인으로 세웁니다. 여기서 룯을 샀다는 말은 룯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말이지, 사람을 돈으로 샀다는 말은 아닙니다. 장로들은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서 복을 빌어 줍니다.

룰은 여호와와 기업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그녀가 라헬과 레아와 같은 복을 받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는 이 지방의 유지자가 되라며,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라는 복을 빌어 줍니다. 이 축복은 보아스와 룯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어, 진정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통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 성경 본문

- 1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 2 보아스가 그 성문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 3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옴이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 4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

- 1 Meanwhile Boaz went up to the town gate and sat there. When the kinsman-redeemer he had mentioned came along, Boaz said, "Come over here, my friend, and sit down." So he went over and sat down.
- 2 Boaz took ten of the elders of the town and said, "Sit here," and they did so.
- 3 Then he said to the kinsman-redeemer, "Naomi, who has come back from Moab, is selling the piece of land that belonged to our brother Elimelech.
- 4 I thought I should bring the matter to your attention and suggest that you buy it in

- 일 네가 무르려면 무르려니와 만일 네가 무르지 아니하러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무를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르리라 하는지라
- 5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룓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지니라 하니
- 6 그 기업 무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무를 것을 네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 지라
- 7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 8 이에 그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 9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 10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룓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 11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타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 12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 the presence of these seated here and in the presence of the elders of my people. If you will redeem it, do so. But if you will not, tell me, so I will know. For no one has the right to do it except you, and I am next in line." "I will redeem it," he said.
- 5 Then Boaz said, "On the day you buy the land from Naomi and from Ruth the Moabitess, you acquire the dead man's widow, in order to maintain the name of the dead with his property."
- 6 At this, the kinsman-redeemer said, "Then I cannot redeem it because I might endanger my own estate. You redeem it yourself. I cannot do it."
- 7 (Now in earlier times in Israel, for the redemption and transfer of property to become final, one party took off his sandal and gave it to the other. This was the method of legalizing transactions in Israel.)
- 8 So the kinsman-redeemer said to Boaz, "Buy it yourself." And he removed his sandal.
- 9 Then Boaz announced to the elders and all the people, "Today you are witnesses that I have bought from Naomi all the property of Elimelech, Kilion and Mahlon.
- 10 I have also acquired Ruth the Moabitess, Mahlon's widow, as my wife, in order to maintain the name of the dead with his property, so that his name will not disappear from among his family or from the town records. Today you are witnesses!"
- 11 Then the elders and all those at the gate said, "We are witnesses. May the LORD make the woman who is coming into your home like Rachel and Leah, who together built up the house of Israel. May you have standing in Ephrathah and be famous in Bethlehem.
- 12 Through the offspring the LORD gives you by this young woman, may your family be like that of Perez, whom Tamar bore to Judah."

》》 기도 제목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맡은 일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47 “그의 신을 벗어” 재산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은 신발을 벗어 새 소유주에게 주어 공적으로 확인시켰다. 누지문서가 유사한 풍습을 보여준다.

임신하게 하시므로

본문 룻기 4:13~22 찬송가 488장

» 본문 해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후 여호와께서 그녀를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녀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13절). 여인들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면서(14절) 그가 앞으로 나옴에게 생명의 회복자이자 봉양자가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15절). 하나님께서는 나옴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룻은 자녀를 낳았고, 주위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17절) 그 이름이 바로 오벧입니다.

이 오벧이라는 뜻은 섬기는 자, 봉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오벧을 통해 이새가 태어나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섬기는 자이시며 봉양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일에 이방의 여인 룻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함으로, 오늘도 주권을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 성경 본문

- 13 이에 보아스가 콧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 14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무를 자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 15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 16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 17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벧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 18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 19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 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 21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벧을 낳았고
- 22 오벧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 13 So Boaz took Ruth and she became his wife. Then he went to her, and the LORD enabled her to conceive, and she gave birth to a son.
- 14 The women said to Naomi: "Praise be to the LORD, who this day has not left you without a kinsman-redeemer. May he become famous throughout Israel!"
- 15 He will renew your life and sustain you in your old age. For your daughter-in-law, who loves you and who is better to you than seven sons, has given him birth."
- 16 Then Naomi took the child, laid him in her lap and cared for him.
- 17 The women living there said, "Naomi has a son." And they named him Obed. He was the father of Jesse, the father of David.
- 18 This, then, is the family line of Perez: Perez was the father of Hezron,
- 19 Hezron the father of Ram, Ram the father of Amminadab,
- 20 Amminadab the father of Nahshon, Nahshon the father of Salmon,
- 21 Salmon the father of Boaz, Boaz the father of Obed,
- 22 Obed the father of Jesse, and Jesse the father of David.

>>> 기도 제목

인생의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로 섬기며 그를 절대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4:15 "일곱 아들보다 귀한" "일곱"은 완전수이므로 이스라엘에서 일곱 아들을 갖는다는 것은 가정에서의 가장 완벽한 축복을 의미한다.



구역모임·소그룹 성경공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11월 첫째 주 1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본문 고린도후서 11:16 찬송가 314장, 315장

학습 목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를 삶에서 적용해 보자.

1. 본문 배경 알기

고린도후서 11:16~33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 앞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울은 그의 대적자들로부터 자신이 육체를 따라 행하고, 어리석고, 약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비난의 항목들을 오히려 역설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헬라-로마 사회에서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이 관례 속에서 그는 자신에 자랑할 것은 사람들에게 실패와 부끄러움으로 인식되던 ‘어리석음’(약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16절). 이렇게 바울은 자랑이라는 문화적 관행을 뒤집어버리는 파격적인 주장을 한 것입니다.

특히 그는 그리스도와 고린도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파선하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못 자고, 못 먹고, 고생한 일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고린도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자랑합니다(23~29절).

2. 본문 구성 이해하기

- (a) 고후 11:16~22 어리석음을 자랑함
- (b) 고후 11:23~31 자랑의 항목들(어리석음과 약함)

3. 본문 연구하기

(a) 어리석음을 자랑함(고후 11:16~22)

바울 당시 헬라-로마 사회에서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생에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영광과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이생에서 자신이 이룬 여러 가지 업적들을 자랑하는 일은 관례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러한 업적들을 기념비나 공공 건물, 자서전 등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항목들이 아닌,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높이 고자 합니다.

Q. 바울은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까?(16절)

(b) 자랑의 항목들(고후 11:23~31)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 앞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점(22절)에 이어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역경(23~29절), 그리고 자신이 *도망자로 성벽을 내려간 것(32~33절)을 자랑합니다. 그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하고 패배한 자의 항목들을 열거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자랑하는 항목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과 온유에서 기인한 겸손과 사랑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당시 로마 군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무공표창은, 포위된 도시 성벽을 용기 있게 처음으로 넘어간 군인에게 수여했습니다.

Q.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어떠한 면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23~31절)

4. 본문 적용하기

Q. 당신이 남들보다 우월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 우월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Q. 당신이 가장 내세우고 싶은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이 자랑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나눔

외울 말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 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고후 11:16)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11월 둘째 주 2과

악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본문 고린도후서 12:1~10 찬송가 92장, 150장

학습 목표

우리는 힘든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 이를 삶에 적용해 보자.

1. 본문 배경 알기

고린도후서 12:1~10의 전체 주제는 '자신의 가장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2~6절). 그러나 이 체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시'를 주셔서, 이후부터 그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기도는 더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는 여전히 그의 육신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시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허락하셨습니다.

2. 본문 구성 이해하기

- (a) 고후 10:1~6 계시
- (b) 고후 10:7~10 가시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 본문 연구하기

(a) 계시(고후 12:1~6)

바울은 약 14년 전(주후 40년경)에 경험했던 '셋째 하늘'에서의 환상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본 환상과 하나님께 들은 계시를 말과 글로써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을 떠들썩하게 자랑하지 않음으로써, 오직 자신이 그동안 전한 복음에만 사람들을 집중시키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Q. 바울은 무엇만을 자랑하기 원했습니까?(5절)

(b) 가시(고후 12:7~10)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이 가시는 그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고, 교만과 자기만족을 멀리하도록 자극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실패 대신 성공, 연약함 대신 권력에 집착하고 가치를 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교훈을 전했던 것입니다.

Q.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9절)

4. 본문 적용하기

Q. 당신 안에 있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Q. 당신이 연약함을 통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공동체와 나누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나눔

성 명	기도제목

외울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 12:9)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본문 고린도후서 12:14 찬송가 311장, 336장

학습 목표

우리는 복음의 증거를 위해 자신을 감출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삶에 적용해 보자.

1. 본문 배경 알기

고린도후서 12:11~21의 전체 주제는 '고린도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이 교회 내에 유포되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다는 점, 자신이 보여준 만큼의 사랑을 고린도 교인들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동기(헌금 및 후원문제)를 의심하고 있다는 점에 크게 실망했습니다(16~18절).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 앞에 자신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했고, 구체적인 글을 통해 그들이 바울을 본받도록 노력했습니다.

2. 본문 구성 이해하기

(a) 고후 12:11~18 숨김

(b) 고후 11:19~21 드러냄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 본문 연구하기

(a) 사도의 표(고후 12:11~18)

바울은 결코 자신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보다 못하지 않다고 변호합니다. 그들은 환상과 계시를 내세워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행하던 표적과 기사와 능력(사도의 표)은 당시에 환영받았는데, 그들은 이 같은 능력을 행하지 않은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합법화하기 위해 기적적인 현상을 아무 곳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12절). 바울은 '모든 참음'으로 이런 표적들을 행할 때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구경거리 삼아 표적을 행한 것과는 자신의 사역이 대조된다고 말합니다.

Q. 바울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14절)

(b) 바울이 자신을 드러냄(고후 12:19~21)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약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안에서 그들 자신의 연약한 실체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의 교만함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11절). 이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들 앞에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한 것입니다(19절).

Q.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입니까?(19절)

4. 본문 적용하기

Q. 당신의 사역이나 선행을 드러내지 않고 계십니까?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 당신은 복음의 증거를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역을 위해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나눔

성 명	기도제목

외울 말씀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고후 12:14)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11월 넷째 주 4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본문 고린도후서 13:5 찬송가 421장, 397장

학습 목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를 삶에 적용해 보자.

1. 본문 배경 알기

고린도후서 13:1~13의 전체 주제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입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하기보다는(3절),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안에 계신'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5절). 이 확증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강한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바울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9절). 그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고린도교회가 바로 서서 고침을 받아,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11절).

2. 본문 구성 이해하기

- (a) 고후 13:1~4 약한 가운데서 강함
- (b) 고후 13:5~12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 본문 연구하기

(a) 약한 가운데서 강함(고후 13:1~4)

바울은 고린도교회 방문을 앞두고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근심 끝에 공개적으로 치리회를 열 것이라고 전달합니다(1~2절). 새로 온 사람들은 바울을 약한 사람이라고 업신여기겠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적, 도덕적 권능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4절).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기에, 약한 가운데서 강함을 그의 삶에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Q.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갑니까?(4절)

(b)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후 13:5~12)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안에 살아 계심을 깨닫기 원했습니다(5절). 지금까지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사역의 증거는 그들이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케 되어 고침을 받아(9, 11절) 강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우리 안에 계신 이는 누구입니까?(5절)

4. 본문 적용하기

Q.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일은 무엇입니까?

Q.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를 증거하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나눔

성 명	기도제목

외울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고후 13:5)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A woven basket, likely made of bamboo or reed, is filled with various nuts. In the foreground, several walnuts with their characteristic cracked shells are visible. Behind them, there are several chestnuts with their smooth, reddish-brown husks. The basket is placed on a light-colored wooden surface with a visible grain. The lighting is warm and soft, creating a cozy atmospher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충현의 만나 2015년 11월

Copyright© 2015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 편집인 | 권명옥 · 집필진 | 박성봉 김주한 엄현묵 성준우 강은미 김원기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물)